

공사장의 어머니개, 모정이 이야기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공사장에 살던 시절, 모정과 아기들

2013년 가을, 캣맘인 지안 씨는 자신이 나눠준 길고양이 밥을 먹고 있는 발바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래 굶주린 듯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도 강아지는 쉴 새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밥을 먹다 말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풀숲 사이로 숨어들어 몸을 낮추고 재빠르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길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닐 듯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유기견과 떠돌이 개들이 그렇듯 그 발바리에게도 길거리 생활은 녹록치 않았을 겁니다. 길고양이들의 밥을 먹는 것,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조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이 발바리가 터득한 생존 방법이었던지요.

지안 씨는 강아지의 동선을 쫓으며 그 강아지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아파트 뒤흘의 야트막한 언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 강추위가 몰려온 날은 거센 바람을 피할 곳도 없이 언덕 위 마른수풀 속에서 잠들어 있기도 했습니다. 지안 씨는 언덕 한 쪽에나마 강아지의 밥과 잠자리를 챙겨주고 싶었지만 경계심이 심한 아이다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안 씨가 산비탈 초입에 나타나면 강아지는 곧장 줄행랑을 쳤고, 한 번 도망을 치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 강아지를 위해 놓아둔 사료는 까치밥이 되곤 했으니까요. 밥 한 번 먹이기도 쉽지 않은 아이였지만 지안 씨는 먼발치에

서라도 강아지를 본 날이면 한결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내고 있구나.’

하지만 해가 바뀌고 추위가 절정에 이를 무렵 강아지는 더 이상 지안 씨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은 건 아닐까, 차에 치인 건 아닐까, 지안 씨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름철은 아니지만 체구가 작지 않은 믹스견이다 보니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을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지안 씨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와 고층상가가 있는 신도시이기도 했지만,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논밭과 시골집, 더러는 폐기물마저 공존하고 있는 시골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노인들이 있었고, 복날이 되면 이웃들끼리 개를 바꿔 잡아먹는 것도 흔한 일이었지요.

지안 씨 앞에 다시 강아지가 나타난 것은 긴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이전보다 더 경계심이 심해져 있었고, 짚이 통통 불어 있었습니다. 지안 씨가 못 본 사이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원래 살던 언덕으로 가지 않고 근처 공사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겨울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긴 했지만 자재가 쌓여 있고 흙 같이가 된 공사장은 어수선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풀리면 공사는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트럭과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 것이었습니다.

지안 씨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공사장 컨테이너 아래 흙을 파고 그 속에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누군가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도 알 수 없는 곳이었지만, 어머니개는 특유의 조심성으로 새끼들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개가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구하러 나가면 강아지들은 마치 엄마가 그러라고 가르쳐주기라도 한 듯 컨테이너 아래로 속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새끼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어머니개는 있는 힘을 다해 짚으면서 사람들이 새끼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해가며, 때로는 새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어미개는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미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지안 씨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미개가 집으로 삼은 컨테이너 아래는 언제까지 안전한 은신처일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공사가 재개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었고, 공사장에서 쫓겨난 어미개는 새끼들과 함께 길거리를 떠돌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의 어느 날, 지안 씨는 퉁키벨 프로젝트에 구조를 요청했고 정회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대표님은 어미개와 세 마리의 새끼강아지들을 구하기 위해 공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퉁키벨 프로젝트를 통해 어미개가 새롭게 얻은 이름은 '모정(母情)'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곤 생각했는데...”

공사장에 도착한 대표님은 난감한 기색이었습니다. 새끼들은 컨테이너 아래 작은 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어미개인 모정이는 필사적으로 짖고 으르렁거리며 구조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다섯 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대표님은 어렵사리 새끼강아지 두 마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맏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와 둘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모정이와 막내 강아지가 눈에 밝았지만 이미 해가 진 뒤라 더 이상의 구조 활동은 무리였습니다.

두 강아지만 데리고 서울의 동물병원으로 올라가는 길, 대표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눈앞에서 새끼 둘을 빼앗긴 모정이가 어떤 심정으로 오늘밤을 보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착잡했습니다. 모정이는 새끼들이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데려간 새끼들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정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정이와 막내를 구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조 요청자인 지안 씨도 하루 빨리 모정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꾸준히 모정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던 지안 씨는 얼마 후 모정이를 쓰다듬는 것까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번 마음을 열자 모정이도 지안 씨가 의지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지안 씨가 오면 배를 보여주고 스스로없이 지안 씨에게 안기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지안 씨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대표님은 또 한 번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수월하게 막내 강아지를 먼저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모정이었습니다. 모정이는 차에 먼저 태워진 새끼를 보면서 처절한 목소리로 울부

짖었습니다. 새끼를 버리고 도망칠 수도 없고, 새끼를 잡아가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올 수도 없었던 모정이는 차 주변을 서성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정이와 새끼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 상황만큼은 마치 구조자들이 새끼를 두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조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의 모정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대표님을 평소보다 더 속력을 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모정이가 병원에서 나머지 아기들과 재회하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말이

모정이는 끝내 새끼를 두고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대표님의 손에 붙잡힌 모정이는 케이지 문에 달히는 순간 모든 것을 체념한



모정이(오른쪽)와 친구 꼬비의 최근 모습

‘동물이 사람이랑 똑같아?’

동물권이나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타자에게 마땅히 존중과 애정, 관용과 배려, 연민과 연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동물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반문처럼 동물과 사람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르다는 것이 우월과 열등의 기준은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

퉁키벨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유기동물을 만났지만, 그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와 다른 점보다 같은 점에 눈이 더 많이 갑니다. 구조되던 그 순간까지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어미개 모정이에게서 우리의 어머니와 다르지 않은 모성애를 발견했던 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마리의 새끼들은 모두 입양을 갔지만 모정이는 구조된 지 몇 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퉁키벨 프로젝트 위탁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한 엄마 모정이. 언젠가는 모정이에게도 모정을 베풀어줄 따뜻한 가족이 나타나겠죠? 🐾